

SK, 단독개발 자일렌 촉매 수출

인디아 Reliance와 공급계약 ... 2004년 대규모 입찰에 유리

SK가 독자기술로 개발한 석유화학 공정용 촉매를 해외시장에 선보인다.

SK(대표 황두열)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일렌 생산용 촉매 <ATA-11>를 아시아 최대 석유화학기업인 인디아 Reliance Industries에 공급한다고 밝혔다.

공급계약은 2004년 말 예정인 대규모 촉매 경쟁입찰의 전초전이어서 계약 물량이 소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유화학 공정용 촉매 시장점유율 80%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UOP와 치열한 경쟁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.

SK는 수주 성공으로 2004년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함과 동시에 자체 개발한 촉매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각인시킨 것으로 평가된다.

<ATA-11> 촉매 개발을 주도한 SK 대덕기술원 박상훈 원장은 "SK는 환경촉매 및 디젤 매연저감 촉매 기술, 정유·석유화학 공정용 촉매 등의 기술을 개발해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, 석유화학용 촉매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이제는 해외 메이저 기업들이 기술경쟁 상대로 여길 정도"라고 설명했다.

<ATA-11>은 석유화학 공정에서 저부가가치 Aromatic 성분을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인 자일렌으로 전환시키는 Tatory 공정에서 이용되는 트랜스알킬레이션 촉매(Transalkylation Catalyst)이다. 자일렌은 합성섬유, 합성수지 및 도료, 페인트 등 용제의 원료로 쓰이는 등 이용 분야가 폭넓은 석유화학 기초원료이다.

SK가 개발한 자일렌 전환용 촉매



SK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0억원을 들여 <ATA-11> 촉매를 개발한 후 울산공장에 적용해 자일렌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으며, 2001년 11월 Royal Dutch Shell의 자회사이자 촉매 및 촉매원료 전문기업인 미국의 Zeolyst(지올리스트)와 생산 및 마케팅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.

SK와 지올리스트는 2002년 10월 타이완 Formosa 계열의 석유화학기업인 FCFC에 ATA-11 촉매 및 관련 기술을 판매한 것을 필두로 국내외 유수의 정유·화학기업과 공급 협상을 추진해 왔다. 현재 미국, 중국 및 국내기업들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주가 예상된다.

한편, SK는 촉매 공급과 더불어 인력을 파견해 인디아 현지 기술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9/30>